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교수의 기독교대학에 대한 인식도 조사**)

김지원 백석대 교수

I. 서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 상황에서, 각종 대학평가와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은 기독교대학에 더욱 큰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대학의 생존을 위해 “대다수 기독교대학들은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같은 고민보다 대학종합평가에서 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이를 홍보하여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거나 국가로부터 더 많은 재정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계량적 지표 충족에 급급해 있다(김성수, 2017: 35).” 학교법인 백석대학교(이하, 백석대학교)는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김지원, 2018: 162-164),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백석대학교도 각종 대학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재정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정체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총체적인 변화와 혼돈이 한 시대를 강타할 때에는 언제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회복의 상책이다(한병수, 2022: 10).” 현재 기독교대학의 위기 상황에서 이를 돌파하기 위한 방법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대학의 미래는 외부 기간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대학으로 살아남기 위해 세상적 방식을 쫓아가는 것에 있지 않다. 존 파이퍼는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질문하며 그 답 중 하나로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비추어 삶을 재정렬하라는 신호’를 주시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존 파이퍼, 2020: 91).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지나가며 백석학원은 기독교대학으로서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백석공동체 구성원들의 삶과 행정체계 등을 재정렬해야 한다. 죽어가는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 장종현 박사가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개혁주의신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실천적 운동을 제안하였듯이(장종현, 2021;

*) 본 연구는 2021년 5월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코로나 19 이후 기독교대학: 백석대학교와 개혁주의생명신학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논문의 후속연구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소속 교수들을 대상으로 기독교대학 인식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추가하고, 기존 학술대회발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 학교법인 백석대학교는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를 의미하고, 백석학원은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와 함께 서울에 소재하는 있는 백석예술대학교, 백석평생교육신학원을 포함한다.

127), 백석학원이 살기 위해서는 설립정신인 개혁주의생명신학으로 기독교대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실천적 운동을 전개해야한다.

백석학원은 이미 오래전에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실천운동을 강조하여왔다. 그 핵심은 개혁주의생명신학이다. 개혁주의생명신학은 개혁주의신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실천적 운동을 지향하고 있다(장종현, 2014: 7).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정신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성경이 답이다.”라는 것이다. “성경이 답이다.”라는 기초 위에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실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백석학원 산하의 백석정신아카데미는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하는 부서로, “백석대학교의 ‘백석정신아카데미’나 연세대학교의 ‘언더우드학원선교센터’와 같은 기관들이 각 기독교대학들에 확산되어 상호 시너지를 만들어야 할 것(정종훈, 2014: 90)”이라고 언급될 만큼 모범적인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백석학원이 기독교대학을 만들어가기 위한 강한 의지를 선언하고, 다른 기독교대학에 없는 정체성 유지를 위한 부서를 두고 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 위기의 상황에 더욱 힘 있게 기독교대학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기독교 사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두 가지 의견이 있다. 하나는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또 다른 목소리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먼저 대학으로 생존해야 기독교대학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들 사이에서 기독교대학들은 앞서 김성수(2017: 35)가 언급한 것과 같이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기독교대학이 내세우는 정체성의 가치와 실제 대학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사이의 괴리감을 느끼며 기독교대학 소속의 교수와 직원, 학생들 중 일부는 기독교대학답지 않은 경영과 행정 방식에 기독교대학을 향한 진정성에 의심을 품고 있는 상황이다.

기독교대학 안에 있는 구성원들 사이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기독교대학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이 서로 다름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도 있다(Swezey and Ross, 2012). 이러한 시기에 기독교대학을 만들어가는 최전선에서 교육, 연구,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교수들이 기독교대학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기독교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백석대학교 소속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기독교대학 인식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가지는 함의를 논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설문조사 방법 및 내용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산하 교수들의 기독교대학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위해 구글 설문지를 작성하고 홈페이지에서 메일 주소가 확인된 546명(백석대학교 417명, 백석문화대학교 129명)에

게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2년 9월 4일부터 16일까지였다. 설문문항은 28문항으로 응답자의 기본정보, 기독교대학으로서 백석학원에 대한 의견, 백석학원의 미래에 대한 의견, 각종 대학평가와 기독교대학, 백석학원을 위한 제언 등을 포함하였다.

2. 응답률과 응답자의 구성

본 설문조사에 백석대학교 110명과 백석문화대학교 28명의 교수를 포함하여 총 138명의 교수들이 참여하였고, 응답률은 25.3%였다. 응답자 중 전임교수는 105명(백석대 84명, 문화대 21명)이었고, 연봉교수는 33명(백석대 26명, 문화대 7명)이었다(Table 1). 근무연수에 따른 응답자의 현황은 1-5년 근무는 19.6%(27명), 6-10년 근무 22.5%(31명), 11-15년 근무 26.8%(37명), 16-20년 15.9%(22명), 21년 이상 근무 15.2%(21명)였다(Table 2).

Table 68 Participants

Affiliated institutions	Division	Number of People (%)
Baekseok Univ.	Tenure track	84 (60.9)
	Non-tenure track	26 (18.8)
Baekseok Culatural Univ.	Tenure track	21 (15.2)
	Non-tenure track	7 (5.1)
Total		138 (100)

Table 69 Number of respondents according to working years

Working Years	Number of People (%)
1~ 5	27 (19.6)
6~10	31 (22.5)
10~15	37 (26.8)
16~20	22 (15.9)
mort than 20	21 (15.2)

Ⅲ. 설문조사 결과

1. 기독교대학으로서 백석학원에 대한 의견

첫째, “백석학원은 기독교대학이다.”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3.8%(88명)이 ‘매우 그렇다’로 29.7%(41명)이 ‘그렇다’로 응답하여 93.5%(129명)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그 외 ‘잘 모르겠다’ 5.8%(8명), ‘매우 아니다’가 0.7% (1명)로 확인되었다(Figure 1).

“백석학원이 기독교대학이다.”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이유에 대한 다중선택 문항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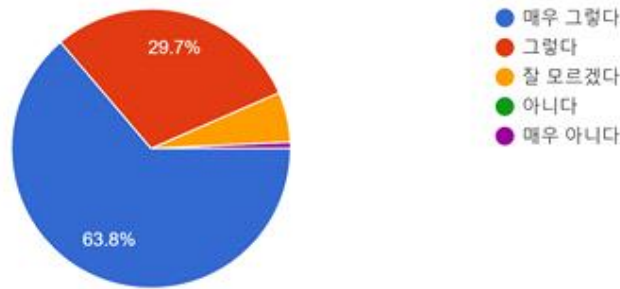


Figure 1 Professors' opinions on the statement "Baekseok University is a Christia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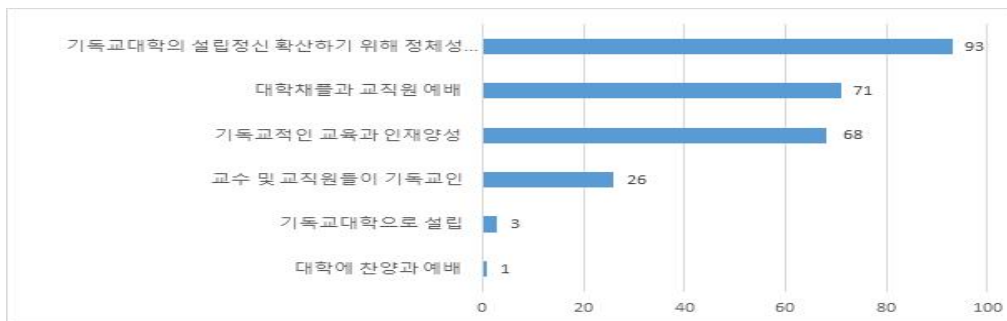


Figure 2 Reasons for giving a positive answer, "Baekseok Academy is a Christian university."

71%(93명)는 '기독교대학의 설립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정체성 교육 등을 시행하기 때문에'라고 답변하였고, 54.2%(71명)는 '대학채플과 교직원 예배가 있기 때문에', 51.9%(68명)는 '기독교적인 교육과 인재양성을 위한 노력 때문에', 19.8%(26명)는 '교수 및 교직원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이라고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기독교대학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가 2.4%(3명), '대학에 찬양과 예배가 있기 때문에'가 0.8%(1명)이었다(Figure 2). "백석학원이 기독교대학이다."에 대하여 '매우 아니다'라고 언급한 이유에 대하여는 '기독교대학으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이라고 응답하였다(1명).

둘째, "백석학원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이라는 질문에 대한 다중선택 응답에는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확산을 위한 노력'을 잘하고 있다고 79.7%(110명)가 응답하였다. 그 외에 '건축 및 조경 등의 교육환경 조성'을 잘하고 있다고 35.5%(49명), '복음전도'를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21.7%(30명), '경영과 행정'을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7.2%(10명)였다.

셋째, "백석학원이 기독교대학으로 나아가는데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25.4%(35명)가 '매우 그렇다'로, 42.8%(59명)이 '그렇다'로 답변하여 68.1%(94명)가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응답하였다(Figure 3), 21.7%(30명)는 '잘 모르겠다'로 응답하였다. 8%(11명)는 '아니다'로, 2.2%(3명)는 '매우 아니다'로 응답하여 10.1%(14명)는 개선할 것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Figur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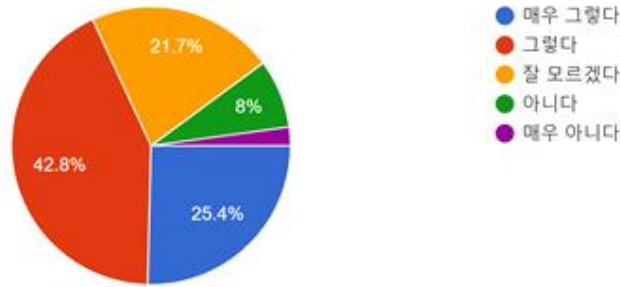


Figure 3 Professors' opinions on the question "Is there anything that needs to be improved for Baekseok Academy to become a Christian university?"

Table 3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Baekseok School as a Christian university

내용	건 수
학원복음화를 위한 다양한 실천	19
기독교적 경영과 행정	18
대학 구성원 간의 소통과 배려, 존중	11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한 기독교문화 형성과 이미지 개선	9
교직원의 정체성 교육과 집회 강화	6
처우 개선	4
지역사회를 향한 이웃사랑 실천과 복음전도	4
대학교회 출석 등 교직원의 자율성 확대	4
친인척 문제 해결	3
구성원간의 분위기와 신뢰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3
교직원과 학생 모두가 만족하는 학원	3
교직원 예배의 설교 내용과 실제 대학행정의 괴리감 해소*)	2
신앙과 학문통합 등 기독교대학을 만들어가는 일에 재정 지원 확대	2
각 부서의 특성을 무시한 일괄적 기준과 성과주의 개선	2
믿음과 역량을 갖춘 교수와 직원의 채용	2
본부장급 이상 보직자 수 줄이고, 보직자의 임기 제한	2
나부터 변화되어 학생상담, 인성교육, 기독교 수업에 적극적 참여	2
기독교대학을 졸업한 롤모델 발굴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연구	각 1건
학생들 배려(통학버스 개선)	

백석학원이 기독교대학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유질문에 대하여 56.5%(78

*) 교직원 예배의 설교내용과 실제 대학행정의 괴리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 중 하나로 "교내에서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지 않은 채 말로만 개혁주의생명신학을 외치고 있는 듯합니다. 표리부동한 모습이 비기독교적으로 느껴집니다. 백석아가 하는 일도 형식적인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감동이 없는 이유입니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명)가 Table 3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중 ‘학원복음화를 위한 다양한 실천’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의견 중에는 학생신앙 교육의 강화, 비기독교인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기독교세계관 과목 등의 평가방식 개선, 기독교정체성 비교과 프로그램 확대, 교수 개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과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로는 ‘기독교적인 경영과 행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18건, ‘대학 구성원 간의 소통, 배려, 존중’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11건,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한 기독교 문화를 형성하고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9건이었다. 또한 교직원의 ‘정체성 교육과 집회 강화’ 6건, 교직원의 ‘처우 개선’ 4건, ‘지역사회를 향한 이웃사랑 실천과 복음전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4건 있었다. 그 외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Table 3).

“일반 교수들이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을 살아가는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는 6.5%(9명), ‘그렇다’는 23.3%(32명)로 29.7%(41명)가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의견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Figure 4). 47.8%(66명)는 ‘잘 모르겠다’, ‘아니다’ 18.1%(25명)와 ‘매우 아니다’ 4.3%(6명)로 22.5%(31명)만이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니라는 의견을 보였다(Figur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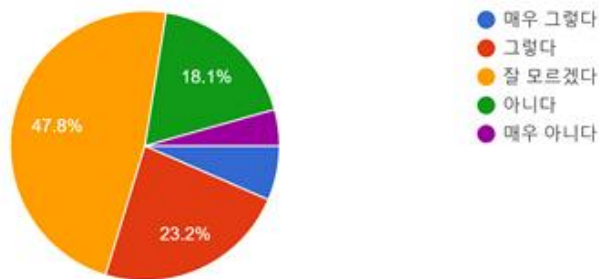


Figure 222 Answer to the question “Are general professors living the lives of ‘practical atheists’ that have nothing to do with Jesus?”

동료 교수들에 대하여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하여 ‘예배를 드리지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교수라고 보기 힘들어서’, ‘사랑을 실천한지 않고 형식에만 얽매인 기독교인이어서’, ‘삶에서 기독교인성이 드러나지 않아서’, ‘믿지 않으면서 교수가 직업인 사람이 있어서’, ‘기독교적인 삶이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신앙과 삶의 불일치 때문에’, ‘세속화된 사고와 관습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과 은혜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신앙과 삶의 이원론적인 태도 때문에’ 등으로 응답하였다.

동료 교수들에 대하여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는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부족하기 때문에’, ‘대다수 교수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개인의 신앙에 대해

보이는 것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 학부 교수 다수가 나름대로 실천적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신앙을 판단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만나 본 교수님들은 상당히 신앙적이기 때문에’ 등의 답변을 하였다.

“주요 보직자들이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을 살아가는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는 7.2%(10명), ‘그렇다’는 20.3%(28명)로 27.5%(38명)가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의견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Figure 5). 46.4%(64명)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니다’는 21.7%(30명), ‘매우 아니다’는 4.3%(6명)로 26.1%(36명)만이 주요 보직자들이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니라는 의견을 보였다(Figur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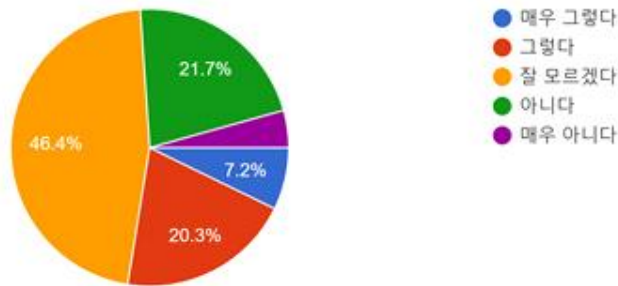


Figure 223 Answers to the question “Are the leading professors living the lives of ‘practical atheists’ that have nothing to do with Jesus?”

주요 보직자들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하여 ‘모두는 아니지만 경영과 행정에서 비기독교대학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믿음보다는 세상논리를 따르기 때문에’, ‘보직자들이 예배와 같이 드러나는 곳에서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지만 타인과 낮은 자에 대한 배려, 관심, 사랑에는 달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직자들이 지시하는 내용이 세상적이기 때문에’, ‘주요 의사결정에 사랑과 배려를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진정으로 기독교대학을 발전시키려는 마음보다는 대학의 유지와 생존에 급급하기 때문에’, ‘리더들의 섬기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대학과 다를 바 없는 대학 행정 때문에’ 등으로 답하였다.

주요 보직자들이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하여 ‘보이는 것만으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리더들의 수고에 감사하고 기도해야하기 때문에’, ‘주요 보직자 다수가 나름대로 실천적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이나 근거가 부족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주요 보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학교를 사랑하고 행정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 조심스럽기 때문에’, ‘앞서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리더들이 세상풍파 속에서 대학이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타협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등으로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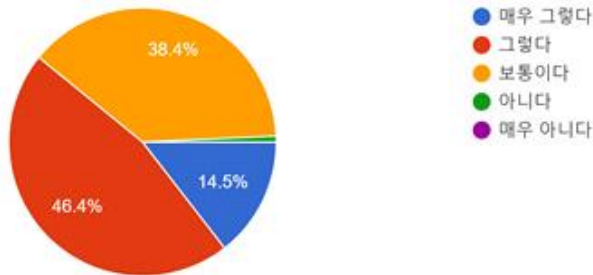


Figure 224 Answer to the question “Are you committed to making Baekseok Academy a true Christian university?”

교수 스스로 “백석학원이 진정한 기독교대학으로 성장하는데 헌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14.5%(20명)는 ‘매우 그렇다’로, 46.4%(64명)는 ‘그렇다’로 응답하여 60.9%(84명)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Figure 6). 38.4%(53명)은 ‘보통이다’, 0.7%(1명)은 ‘아니다’로 답하였고, ‘매우 아니다’로 답변한 것은 없었다(Figure 6).

위의 질문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백석학원이 기독교대학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지 묻는 다중선택 질문에 133명이 응답하였다. 그 중 ‘맡겨진 교육과 행정 업무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견이 63.2%(84명)이었고, ‘맡겨진 교육과 행정 업무에 성실히’ 임한다는 의견이 61.7%(82명), 예배 참여와 기도생활 그리고 복음전파를 위해 노력’한다고 50.4%(67명)가 응답하였고, ‘신앙이 없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함’이 36.1%(48명),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학문 연구에 적극 참여’한다는 의견이 29.3%(39명)이었고, 그 외 소수 의견들이 있었다(Figur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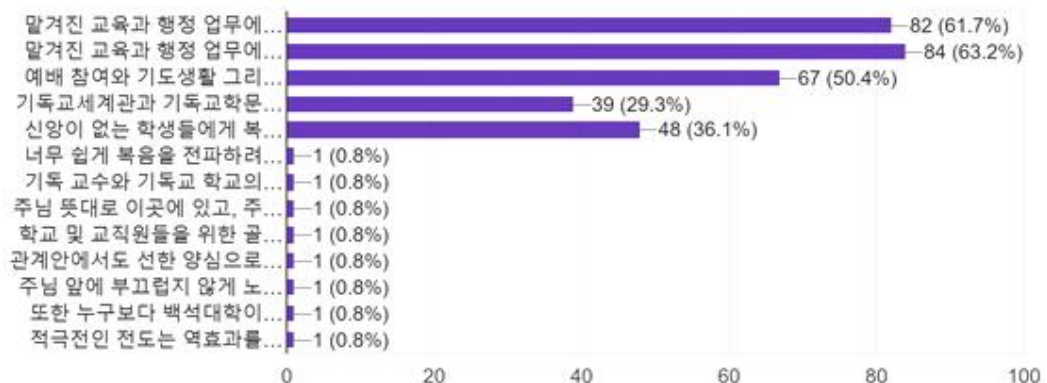


Figure 225 Response to the multiple-choice question 'How do you contribute to the growth of Baekseok Academy as a Christian university?'

“백석학원이 진정한 기독교대학으로 성장하는데 헌신하고 싶으십니까?”라는 질문에 31.2%(43명)이 ‘매우 그렇다’로, 48.6%(67명)이 ‘그렇다’로 응답하여 79.7%(110명)이 기독교 대학의 성장을 위해 헌신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Figure 8). 18.8%(26명)은 ‘보통이다’, 1.4%(2명)는 ‘아니다’로 응답하였고, ‘매우 아니다’로 응답한 예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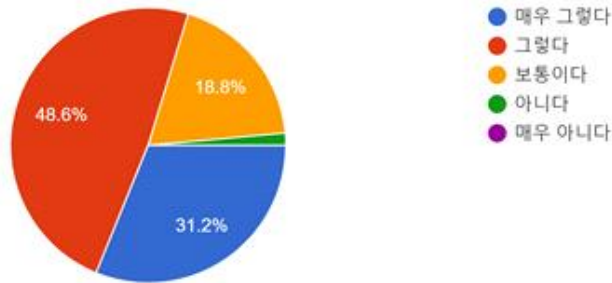


Figure 226 Answer to the question “Do you want to devote yourself to the growth of Baekseok Academy as a true Christian university?”

헌신의 방식에 대한 다중선택에 대하여 ‘학생상담과 전도를 통해’ 54.5%(72명), ‘기도와 예배를 통해’ 50%(66명),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교육을 통해’ 49.2%(65명), ‘보직을 통한 기독교 행정과 경영에 기여’ 22%(29명), ‘기독교학문 연구를 통해’ 20.5%(27명)로 응답하였다. 헌신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낸 두 명은 각각 ‘기독교대학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로 바빠기 때문에’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백석학원의 미래에 대한 의견

“백석학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독교대학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31.9%(44명)이 ‘매우 그렇다’, 38.4%(53명)이 ‘그렇다’로 응답하여 70.3%(97명)가 백석학원이 기독교대학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Figure 9). 22.5%(31명)은 ‘잘 모르겠다’, 5.8%(8명)은 ‘아니다’, 1.4%(2명)은 ‘매우 아니다’로 응답하여 7.2%(10명)가 기독교대학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Figure 9).

기독교대학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모든 구성원이 하나 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전파에 힘쓰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을 하고 개혁주의생명신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끌어주실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구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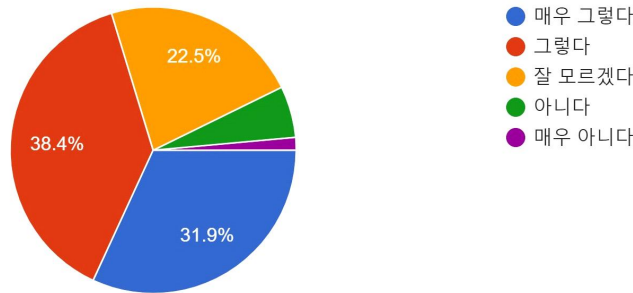


Figure 227 Answer to the question “Do you think Baekseok Schools will continue to grow as a Christian university that is pleasing to God?”

이 있기 때문에’, ‘향후 20년은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이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예배, 채플, 주일에 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지속적 성장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대학으로서 정체성 확립과 이를 견인할 수 있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이 있기 때문에’, ‘백석학원은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백석공동체 구성원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백석학원에 부르신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학생들을 사랑하며 최선을 다하는 교직원이 있기 때문에’, ‘기도와 노력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수님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독교세계관을 가지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교직원들 중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명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백석의 리더 모두가 나름의 규칙으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흠이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설립자를 포함하여 많은 교직원들이 하나님 중심의 대학을 만들고자 항상 기도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석학원을 통해 일하실 것이라 믿기 때문에’, ‘설립자의 확고한 기독교 정체성 인식 때문에’, ‘헌신적으로 학생채플과 기독교 교양수업으로 섬기는 학부담임목사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교수가 있고 우리 학교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앞으로도 이끌어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학생들을 섬기는 교직원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설립자의 의지와 백석정신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학생을 위해 헌신하는 신실한 교수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의 주요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분들이 기독교대학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고 실현할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기독교적 삶과 교육이념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복음전파를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헌신적인 보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총장님과, 목사님 그리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라고 답하였다.

기독교대학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Z세대에 적합하지 않은 기독교 문화와 제도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학생들의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설립취지에서 벗어나면 우리대학의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에’, ‘현 상태로 유지된다면 기독교대학과는 점점 멀어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대학으

로 시스템이 미약하기 때문에’, ‘외면은 기독교대학이지만 내면은 비기독교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기독교 정체성을 실현하는지 의문이기 때문에’, ‘비기독교적인 행정 때문에’라고 답하였다.

“백석학원이 기독교대학이 아닌 하나의 대학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5.1%(7명)이 ‘매우 그렇다’, 26.1%(36명)이 ‘그렇다’로 응답하여 31.2%(43명)가 백석학원이 기독교대학이 아닌 하나의 대학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38.4%(53명)은 ‘잘 모르겠다’, 23.2%(32명)은 ‘아니다’, 7.2%(10명)은 ‘매우 아니다’로 응답하여 30.4%(42명)가 기독교대학이 아닌 하나의 대학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3.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실천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이해도에 대한 질문에서, 18.1%(25명)은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 52.2%(72명)은 ‘이해하고 있다’로 응답하여, 70.3%(97명)가 개혁주의생명신학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25.4%(35명)는 ‘보통이다’, 4.3%(6명)은 ‘잘 모른다’로 응답하였다 (Figure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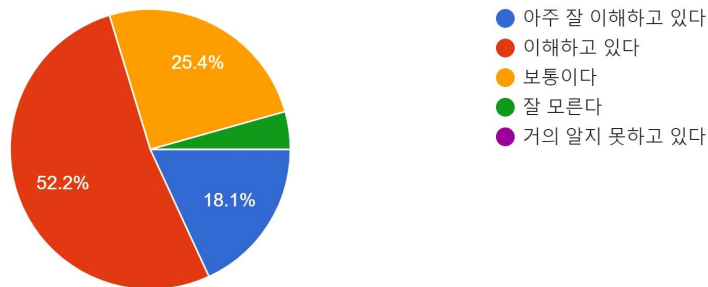


Figure 228 Professors' understanding of Reformed Life Theology

“개혁주의생명신학을 건학이념으로 하는 백석학원이 영적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10.9%(15명)가 ‘매우 그렇다’, 37%(51명)가 ‘그렇다’로 응답하여 47.8%(66명)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36.3%(50명)는 ‘잘 모르겠다’, 13%(18명)은 ‘아니다’, 2.9%(4명)은 ‘매우 아니다’로 15.9%(22명)만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백석학원이 설립정신을 잘 실천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8.7%(12명)가 ‘매우 그렇다’, 39.1%(54명)가 ‘그렇다’로 응답하여 47.8%(66명)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34.1%(47명)는 ‘잘 모르겠다’, 14.5%(20명)은 ‘아니다’, 3.6%(5명)은 ‘매우 아니다’로 18.1%(25명)만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설립정신이 잘 실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에 대한 다중선택에 97명이 응답하였다. 그

중 68%(66명)는 ‘기독교대학을 이루어가려는 설립자의 강력한 의지 때문에’이라고 응답하였고, 55.7%(54)는 ‘예배와 교회생활의 실천을 강조하기 때문에’, 53.6%(52명)는 ‘기독교대학을 이루어가기 위한 타 대학과는 차별된 노력 때문에’, 38.1%(37명)는 ‘성경읽기와 기도의 실천을 강조하기 때문에’이라고 설립정신이 잘 실천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반면 설립정신이 잘 실천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에 대한 다중선택에 25명이 응답하였다. 그 중 100%(25명)는 ‘실제로 대학의 경영과 행정은 비기독교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라고 응답하였고, 60%(15명)는 ‘구성원 간의 사랑과 존중이 없기 때문에’, 56%(14명)는 ‘생명력이 없는 형식적인 종교생활 때문에’, 48%(12명)는 ‘기독교대학을 이루어가려는 진정성이 의심되기 때문에’라고 답하였다.

4. 각종 대학평가와 기독교대학

대학인증평가 등 각종 평가가 백석학원의 발전에 끼친 영향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21.7%(30명)은 ‘매우 긍정적’, 40.6%(56명)은 ‘긍정적’이라고 답변하여 62.3%(86명)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외 28.3%(39명)는 ‘보통’, 6.5%(9명)는 ‘부정적’, 2.9%(4명)은 ‘매우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면에 대학인증평가 등 각종 평가가 백석학원이 기독교대학으로 성장하는데 끼친 영향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는 8.7%(12명)는 ‘매우 긍정적’, 31.9%(44명)는 ‘긍정적’이라고 답변하여 40.6%(56명)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외 41.3%(57명)는 ‘보통’, 11.6%(16명)는 ‘부정적’, 6.5%(9명)은 ‘매우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학인증평가가 기독교대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보통이다’ 이상으로 답한 응답(104개)에 대한 이유에 대하여 ‘인증평가 항목에 대한 준비와 개선으로 대학역량 강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70.2%(73명)이었고, ‘대외적 신뢰도 향상’ 때문이라는 의견은 42.3%(44명), ‘행정의 합리화와 효율화’ 때문이라는 의견은 34.6%(36명),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쟁력 강화’ 때문이라는 의견은 19.2%(20명)이었다.

대학인증평가가 기독교대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24개의 응답에 대한 이유에 대하여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의견은 79.2%(19명), ‘보고서 등 행정업무로 인한 학생상담 소홀’ 때문이라는 의견은 79.2%(19명), ‘각종 평가를 위한 부정직한 행위나 편법’ 때문이라는 의견은 70.8%(17명), ‘상호 소통하기 보다는 업무의 효율성 강조’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66.7%(16명)이었다.

5. 백석학원이 기독교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제언

백석학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독교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구하는 질문

에 56.5%(78명)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Table 4). 백석학원이 ‘말씀묵상과 기도, 복음전도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배려, 존중,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1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학생들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8건으로 그중에는 ‘학생을 배려한 학위수여식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Table 71 Various suggestions for Baekseok Academy to grow into a Christian university that is pleasing to God

내용	건 수
말씀묵상과 기도, 복음전도에 더욱 집중	13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배려, 존중, 소통하는 문화*)	12
학생을 존중(자율성)하는 문화	8
기독교적 경영과 행정 및 인사의 투명성**)	7
호봉제 교원과 연봉제 교원의 차별 문제의 해결	5
교회출석 문제의 개선	3
기독교대학의 설립정신과 가치를 공유	3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대학교육 전문성 강화 및 교수와 직원의 전문성 강화	3
신앙생활(예배, 기도회 참석 등)에 대한 평가 개선	3
보직 수 감소와 보직 임기제 백석문화대(백석예술대)→백석대→대학원으로 이어지는 우수한 학생 양성 섬김과 겸손의 삶이 리더에게서 시작되어 전체로 확산 과도한 업무로 기쁨보다는 강의, 행정, 상담 등을 의무로 하는 것에 대한 불 교직원예배에서 설교자의 다양성 확보	각 1 건

IV. 설문조사 결과가 가지는 함의

1. 기독교대학으로서 백석대학교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

백석대학교가 기독교대학으로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지만(Figure 3, Table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석대학교에 소속된 교수들의 93.5%가 백석학원이 기독교대학이라는 것에 동의하였다(Figure 1). 백석대학교 소속 교수들이 기독교대학이라고 동의하는 이유는 백석학원이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대학채플과 교직원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적인 교육과 인재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시행한다는 점이였다(Figure 2). 이러한 이유들을 볼 때 백석정신아카데미가 설립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기독교 정체성 교육을 하고, 신앙

*) 그 중 “어려운 시기일수록 단기적이고 무리한 행정조치를 남발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기독교대학의 목표를 제시하고 교직원들의 공감과 진심어린 참여를 이끌어 내어 한 가지씩 실천”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 그 중 “하나님 중심보다는 세상의 기준을 따르려는 모습을 통해 기독교대학을 하려는 진정성을 의심하게 됨으로 기독교적 경영과 행정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과 학문연구를 통해 기독교학문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과 교목실에서 대학채플과 교직원예배를 드리는 것이 백석대학교가 기독교대학임을 인식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2. 백석학원의 미래

(1) 백석학원이 기독교대학으로 성장하도록 어떻게 헌신을 이끌어 낼 것인가?

설문조사에서 흥미로운 점은 “백석학원이 기독교대학으로 성장하는데 헌신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60.9%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는데(Figure 6), “백석학원이 기독교대학으로 성장하는데 헌신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는 79.7%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는 것이다. 백석학원이 기독교대학으로 성장하는데 현재의 헌신과 미래의 헌신 사이에 20%에 가까운 차이를 보인다. 특히, 현재의 헌신에서 ‘매우 그렇다’로 답한 경우가 14.5%에서 미래의 헌신에서 ‘매우 그렇다’로 답한 경우가 31.2%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Figure 6, Figure 8). 이는 교수들이 백석학원이 기독교대학으로 성장하는데 헌신하고자하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교수들이 제시하고 있는 기독교대학으로서 개선해야 할 점을 개선하여 나가고 백석학원이 가지고 있어야 할 기독교적 가치를 더욱 굳건하게 하는 작업을 해나간다면 더 많은 교수들의 참여를 통해 기독교대학을 더욱 힘 있게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 백석학원이 가지고 있어야 할 기독교적 가치

백석학원이 갖추어야 할 기독교적 가치는 백석학원의 설립취지와 백석인의 지표를 통해 알 수 있다(장종현, 2014: 13). 백석인의 지표는 “백석인은 기독교적인 삶과 신학과 교육목표를 아는 사람(장종현, 2014: 15).”임을 밝히고 있다. 백석학원의 설립취지는 백석학원이 세상의 대학과 똑같이 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오직 성경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켜 영적생명을 살리는 교육을 하는 것만이 백석학원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백석학원은 “성경이 답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백석공동체에 속한 백석인은 백석인의 지표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기독교적인 삶’을 아는 사람이다. 백석공동체의 교수와 직원은 교육과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에 대하여 ‘성경이 답’임을 알고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여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

① 백석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할 첫 번째 기독교적 가치는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은 백석공동체가 가져야할 기독교적 가치의 핵심이다.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듯, 백석학원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백석학원이 있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 1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백석공동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 학원이 “성경이 답이다!”라고 외치는 이유는 바로 성경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백석공동체는 성경이 보여주는 세계관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교육과 행정을 이루어가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위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대학의 생존을 염려하며 살아남기 위해 전력을 투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대학이 기독교 정체성만 강조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치부될 수도 있다. 하지만 백석학원이 기독교대학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생존을 위한 노력 속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내외의 많은 명문 기독교대학들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남는 길을 선택한 결과로 인해 명목상의 기독교대학으로 남게 되었다. 대학의 위기 상황에서 생존해야 하지만, 생존하기 위해 기독교적 가치를 하나씩 뒤로 미루고 포기한다면 그러한 결정들이 기독교대학을 병들게 할 것이다.

개인의 왜곡된 신앙을 보여주는 ‘잘되는 나’ 중심의 신학이 가지는 핵심 가치는 ‘생존’이다(채영삼, 2021: 20). 개인을 공동체로 확대하여 생각해 볼 때, 백석학원의 핵심가치가 외부 대학평가 기관의 평가를 잘 받아서 ‘잘되는 대학’이 되는 ‘생존’에 집착한다면 이는 기독교대학을 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기독교대학임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이 원하는 길로 간다면 이는 복음의 왜곡이다. 개인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잘되는 나’가 되어 내가 더 성공하고, 더 높은 자리에 앉고,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잘 생존하는 것이 아니듯, 백석공동체의 복음은 대학평가를 통해 더 잘 생존하는 대학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길을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채영삼, 20-21).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무릎 꿇고 받은 사명’은 설립자만의 것이 아니라, 백석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백석공동체가 ‘무릎 꿇고 받은 사명’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라면 세상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평가를 더욱 두려워해야 한다. ‘세상의 평가 중심’의 대학 운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가치로 대학이 운영되어야 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백석학원이 기독교대학을 나아가는데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68.1%가 응답하였고, 그 중 두 번째로 많은 제안이 바로 ‘기독교적 경영과 행정’이었다(Table 3). 이는 대학의 경영과 행정이 백석학원의 설립정신과는 관련 없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개혁주의생명신학을 설립정신으로 하는 백석학원이 “성경이 답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대학의 경영과 행정에 그 가치가 녹아들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려는 구성원들을 좌절하게 하여 돌아서게 하거나, 적절히 타협하며 연약한 신앙인의 삶을 살거나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어떠한 경우이든, 기독교대학으로 나아가려는 백석학원에게는 엄청난 손실이다. 이러한 영적 생명력의 손실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회복할 없는 손실이다. 이러한 손실은 생각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각종 수치(數值)에만 집중하는 것은 기독교대학의 수치(羞恥)이다. 백석공동체의 구성원, 특히 주요 보직자들은 ‘하나님 중심’의 대학 경영과 행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각자가 맡고 있는 사역이 ‘나 중심’ 또는 ‘세상 중심’에 있는지 ‘하나님 중심’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님 중심’의 교육과 행정에는 구성원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있어야 한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신앙을 말하더라도 백석공동체에 소속된 동료들과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실천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죽은 신앙인 것이다. 백석공동체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와 함께 ‘사랑’과 ‘존중’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독교대학에서 갈등을 조절하고 화해의 길로 인도하는 것에 있어서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기독교적 화해 비전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또한 기독교대학의 화해 비전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계제광, 2017:109).”

② 백석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할 두 번째 기독교적 가치는 ‘사랑’이다.

백석공동체의 인사말은 “사랑합니다.”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일4:16).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기쁜 소식이다. 기독교인에게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는 바로 예수님의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겠다는 고백이다. 백석공동체의 구성원 모두는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을 성경을 통해 알고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혹시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랑합니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넘치는 사랑을 경험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고백이다. 그러므로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를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다. 백석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사랑합니다.”를 앵무새처럼 말하게 한다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이 명확히 가르치는 진리와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의 길을 걷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신비한 사귄이나 체험을 말하는 자들은, 모두 성경에서 떠난 자들이다(채영삼, 2021b; 140). ‘백석학원이 기독교대학을 나아가는데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내용 중, 세 번째로 많은 제안이 바로 ‘대학 구성원 간의 소통과 배려, 존중’이었다(Table 3). 백석공동체의 인사말이 “사랑합니다.”가 되려면 먼저 서로 간에 사랑을 깨닫고 그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그럴 때 백석공동체 안에 “사랑합니다.”라는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넘쳐흐를 수 있는 것이다.

백석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답게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배워야 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백석학원의 사랑의 방식도 이와 같아야 한다. 주요 보직자와 행정부서에서 먼저 기독교적 가치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권세를 갖는다는 것은 군림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섬김으로 권위자가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셨다(채영삼, 2021b; 137).

‘백석학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독교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구하는 질문에 소수 의견이지만, ‘섬김과 겸손의 삶이 리더에게서 시작되어 전체로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Table 4). 낮은 자와 약자에게 먼저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모르는 자이다. 그런 사람을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 기독교적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보직자와 부서장들은 ‘기독교적 가치’를 지키지 못함으로 결국 우리 대학의 설립취지를 훼손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고 받는 소명인 기독교대학을 이루어 가는데 방해자가 되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우리대학의 기독교적 가치인 사랑이 많이 훼손되었다. 사랑한다면 행하여지지 않아야 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몇몇 부서에서 각종 평가를 앞두고 빠른 일처리를 위해 마이너스 점수라는 패널티를 주고, 메일을 통해 업무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실명공개를 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런 행정방식으로 교수와 직원이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 그런 이유로 많은 교수들이 백석대학교가 기독교대학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 ‘기독교적 경영과 행정’ 그리고 ‘대학 구성원 간의 소통과 배려, 존중’이라고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Table 3). 대학평가를 앞두고 각종 평가 점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를 위해 누구보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동료들의 섬김에 감사해야 한다. 하지만 기독교대학의 가치를 훼손하면서 대학평가를 잘 받아야 한다는 것은 ‘세상의 수많은 대학에 또 하나의 대학’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설립정신에 반(反)하는 것이다. 각종 대학평가는 더욱 건강한 기독교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지, 대학평가가 기독교대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독교적 가치가 훼손되고 기독교적 가치가 사라진 대학은 더 이상 기독교대학이 아니다. 백석학원의 설립정신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가치가 각 부서에서 실제로 구현되어야 한다. 강압이나 창피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기독교의 가치인 ‘사랑’을 담아내어야 한다.

③ 백석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할 세 번째 기독교적 가치는 ‘존중’이다.

백석공동체가 동료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존중해야 할 근거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다. 백석공동체의 구성원은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귀한 존재로 서로 존중해야 한다. 교수와 직원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깨달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한 인격체로 백석공동체의 구성원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를 보면 백석대학교가 기독교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 ‘대학 구성원 간의 소통과 배려, 존중’ 해야 한다는 의견이 11건으로 세 번째로 많았고(Table 3),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독교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묻는 열린 질문에서도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배려, 존중,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11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Table 4). 물론 극소수의 교직원들이 기본적인 역할도 수행하지 않아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을 핑계로 대다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역을 하는 백석공동체의 구성원들을 규제하거나 통제하려는 태도는 동료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전체 구성원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이나 세상적 이익을 보려는 발상을 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모르는 자이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기독교대학에서 교수, 직원, 학생이 함께하는 존중과 배려의 신앙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세상이 사회적 강제력이나 통치 행위를 통해서 결코 이룰 수 없는 삶의 방식을 신앙공동체를 통해 세상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계제광, 2017: 124).”

백석학원의 교훈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요8:32)”이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하시는 것이다. 예수를 알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것은 머리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깨달은 것이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죽은 신앙이다. 장종현 박사가 개혁주의생명신학을 외치는 이유는 머리로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죽은 신앙의 현실을 깨닫고, 예수 생명을 붙여넣는 실천이 필요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백석학원의 리더들은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깨달은 자답게 백석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불필요한 조치들을 없애야 한다. 기독교대학을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강조하되 실제적으로 적용되지도 않고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한다. “데이비슨대학의 사례는 기독교대학의 신앙적 정체성과 기독교적 가치는 초기의 이상을 현실과 조화시키며 대학의 차별성과 수월성을 위한 비전으로 대학 구성원 사이에서 공감과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노력과 지혜가 병행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가르쳐준다(최영근, 2018: 230).”

3.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실천

백석대학교는 설립정신인 개혁주의생명신학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0.3%가 개혁주의생명신학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Figure 10), 47.8%는 백석대학교가 개혁주의생명신학을 건학이념으로 하는 영적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라고 하였다. 백석학원이 설립정신을 잘 실천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47.8%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경우는 각각 15.9%와 18.1%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백석학원이 교수들이 ‘기독교대학을 이루어가려는 설립자의 강력한 의지’

를 이해하고, '예배와 교회생활의 실천을 강조'하고, '기독교대학을 이루어가기 위한 타 대학과는 차별된 노력'을 행하고, '성경읽기와 기도의 실천을 강조'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실제로 대학의 경영과 행정은 비기독교적으로 운영'되고, '구성원 간의 사랑과 존중'이 없으며, '생명력이 없는 형식적인 종교생활'과 '기독교대학을 이루어가려는 진정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설립정신이 잘 실천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백석학원 내에 서로 다른 의견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백석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한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은 개선해 나가면서 백석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다.

"백석학원이 설립정신을 잘 실천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47.8%(66명)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18.1%(25명)만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은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이 시대에 필요한 외침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이 1인칭의 신앙고백이나 개인적 회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1인칭의 관점을 넘어 '우리'라는 3인칭의 관점으로 공동체의 공적인 영역에 확대되어야 한다. 개혁주의생명신학의 핵심인 "성경이 답이다!"라는 외침과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이 1인칭의 신앙고백을 넘어 백석공동체의 교육과 행정에서 실제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백석공동체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면, 개혁주의생명신학은 또 하나의 학문으로서의 신학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4. 각종 대학평가와 기독교대학

각종 대학평가와 생존을 위해 국책사업에 몰두하는 현상에 대하여 기독교대학으로 성장하는데 위기감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많다(김성수, 2017: 35; 김지원, 2018: 160; 계제광, 2017: 91).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대학인증평가 등 각종 평가가 백석학원의 발전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교수들의 62.3%(86명)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학인증평가 등 각종 평가가 백석학원이 기독교대학으로 성장하는데 끼친 영향에 대한 문항에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40.6%(56명)로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대학인증평가 등 각종 평가가 백석학원이 기독교대학으로 성장에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40.6%(56명)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 18.1%(25명) 보다 많았다. 긍정적인 의견을 준 이유는 '인증평가 항목에 대한 준비와 개선으로 대학역량 강화', '대외적 신뢰도 향상', '행정의 합리화와 효율화',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쟁력 강화' 등이었고, 부정적인 의견을 이유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보고서 등 행정업무로 인한 학생상담 소홀', '각종 평가를 위한 부정직한 행위나 편법', '상호 소통하기 보다는 업무의 효율성 강조' 등이었다.

이는 대학평가로 인한 대학역량 강화, 대외적 신뢰도 향상, 행정의 합리화와 효율화,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쟁력 강화 등이 기독교대학으로 성장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교수들이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평가가 기독교대학으로 성장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견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5. 백석학원이 기독교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제언

백석학원의 설립자인 장종현 박사는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한국판 종교개혁운동이라 할 수 있는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을 시작하였다. 개혁주의생명신학을 설립정신으로 하는 백석학원은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백석대학교 교수들의 68.1%는 백석학원이 기독교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해 개선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하였다(Figure 3).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는 학원복음화를 위한 다양한 실천, 기독교적 경영과 행정, 대학 구성원 간의 소통과 배려 및 존중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고(Table 3), 백석학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독교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구하는 질문에 교수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Table 4). 이러한 제안들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대학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중에는 ‘말씀묵상과 기도, 복음전도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 12건과 ‘기독교대학의 설립정신과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3건이었다. 이는 결국 학원복음화를 위한 다양한 실천으로 귀결된다. 설문조사에서도 기독교대학으로 백석대학교가 개선해야 할 것으로 ‘학원복음화를 위한 다양한 실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Table 3). 백석총회와 함께 하는 백석대학교의 교수들이 ‘복음 전파에 힘쓰는 선교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알고 있는 것이다(장종현, 2021: 208). 학원복음화를 위한 다양한 실천을 위해 교수들이 제시한 내용은 학생신앙교육의 강화, 비기독교인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기독교세계관 과목 등의 평가방식 개선, 기독교정체성 비교과 프로그램 확대, 교수 개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과 지원 등이었다(Table 3).

백석대학교는 학생신앙교육 강화를 위해 매 학기 채플 참석과 기독교 교양과목을 필수로 수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동체 성경읽기 프로그램과 지도교수가 학생들과 함께 성경공부를 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도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하는 성경공부 프로그램은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는 지원율을 보이고 있어 학원복음화를 위한 예산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전공교수들에 의한 기독교세계관의 교육에 있어 담당 교수들이 평가방식의 개선을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80%에 가까운 학생들이 비기독교인 상황에서 기독교세계관 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상대평가를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교수들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절대평가로 바꾸는 것이 외부기관의 평가에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결과로 기독교세계관 수업에 참여하는 각 학부의 전공 교수의 수는 2018년 52명에서 2022년 32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전공교수에 의한 기독교세계관 수업

은 백석인의 교육원리인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학문연구’를 실천하는 것으로(장종현, 2014: 15), 장기적으로는 전공교수에 의한 기독교세계관 수업을 넘어 전공수업에 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백석의 리더들이 외부평가의 점수를 위해 전공교수들의 기독교세계관 수업 참여가 감소하는 상황을 방지할 것인지 아니면 백석학원의 교육원리를 확산할 것인지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한다.

둘째, 기독교대학의 경영과 행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대학으로 백석대학교가 개선해야 할 것으로 두 번째로 많은 제안을 한 것은 백석대학교가 ‘기독교적 경영과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Table 3), 구체적인 제안의 내용을 보면 ‘기독교적 경영과 행정 및 인사의 투명성’ 7건, ‘호봉제 교원과 연봉제 교원의 차별 문제 해결’ 5건, ‘교회출석 문제 개선’ 3건, ‘신앙생활(예배, 기도회 참석 등)에 대한 평가 개선 3건 등이 있었다(Table 4). 이는 백석대학교가 기독교대학이지만 실제 대학의 경영과 행정에 있어 비기독교적인 요소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백석대학교가 기독교대학으로 정체성 교육을 하고 매주 교직원예배와 주일예배를 드리고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 중의 하나인 하나님나라운동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경영과 행정에서는 실현되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기독교대학의 역세속화를 위해 시급한 일 중의 하나는 사역적 탁월성과 학문적 수월성이 상호 보완적이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다(권오병, 2005: 75-76).” 기독교대학의 행정이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는 일을 해야 한다. 대학의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신앙과 경영 사이에 충돌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계제광, 2017: 100).

‘실천적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서도 삶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들이다(김기석, 2015: 79). “그들의 일상적인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행동하고 말하는 일들로 가득 차있다(류호준, 2004: 204).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 교수들과 주요 보직교수들에 대하여 각각 22.5%와 26.1%만이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니라는 의견을 주었다(Figure 4, Figure 5). 이러한 결과가 많은 일반 교수와 주요 보직교수들의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일반 교수와 주요 보직교수들이 보이는 삶의 태도에서 비기독교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모든 교수들은 우리 안에 은밀하게 들어와 있는 비기독교적인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다(Wilkens and Sanford, 2013: 13). 이러한 연약함을 인정하고 변화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아 옳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개혁주의”이다(장종현, 2021: 81). 그렇다면 개혁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개혁주의생명신학을 설립정신으로 내세우는 백석학원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보아 세상적 방식을 따르는 잘못된 경영과 행정 방식을 고쳐나가야 한다.

백석학원은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성경말씀 읽기와 기도생활을 강조해오고 있다. 하지만 기독교

적 가치를 실천하는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고 기도생활을 열심히 하고 다양한 종교적 규율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종교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백석학원이 개혁주의생명신학을 설립정신으로 하여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도생활을 강조하지만 기독교대학으로 힘 있게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종교적인 행위만 강조할 뿐, 실제 대학의 경영과 행정에 있어서 성경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주요 보직에 배치되어 대학운영과 행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설문에 응답한 백석대학교 교수 68.1%가 백석학원이 기독교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해 개선해야 할 것이 있다고 제안한 결과(Figure 3)가 이를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백석학원의 현재 상황을 관찰하여 진단명을 내린다면 실천적 무신론증후군(practical atheist syndrome)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백석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그리스도인이다. 하지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결길로 빠져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신다(롬3:11-12). 백석학원의 현실을 볼 때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장종현 박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개혁주의생명신학을 통해 외치는 것은 학문으로 신학을 하여 무신론자와 같이 예수를 부인하는 신학자들을 꾸짖는 것이요, 한국교회를 향해서는 머리로만 예수를 알고 영적생명력이 없는 신앙인의 삶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이들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증후군을 가진 그리스도인인 것이다. 백석공동체가 실천적 무신론증후군의 진단을 받았음을 인정해야 한다. 자기 의로 가득한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만 말씀으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 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2:20

백석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며,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백석학원에 개혁주의생명신학이라는 귀한 치료제를 주셨다. 하지만 개혁주의생명신학이라는 치료제는 성경의 삶을 실천하는 노력이 동반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으로 백석학원을 회복해야 한다. 치료는 조기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다. 너무 늦어진다면 온갖 노력이 소용없게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회복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셋째, 기독교대학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배려, 존중,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 12건 과 ‘학생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 8건 등이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백석학원이

가지고 있어야 할 기독교적 가치인 ‘하나님 중심’, ‘사랑’, ‘존중’의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백석학원이 게토화된 집단이 아니라 세상에 빛과 소금의 영향을 끼치는 학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개혁주의생명신학을 설립정신으로 삼고 있는 내부에서 조차 소통하고 공감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한국교회에 변화를 주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V. 결론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산하 기독교수들의 기독교대학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기독교대학에 소속된 교수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교수들의 기독교대학과 설립정신에 대한 인식과 기독교대학으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알 수 있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교수로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기독교대학을 이루어가려는 노력에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기독교대학으로 합당하지 못한 모습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반된 의견 속에서 백석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각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시각 또는 그 사이에서 있다.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 백석대학교의 기독교수들이 자신의 입장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백석학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나라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기독교대학도 마찬가지다. 백석학원이 기독교대학으로 시작되었지만 아직 기독교대학이 완성되지는 않은 것이다. 기독교대학으로 만들어져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대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백석학원이 기독교대학으로 시작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동료들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반면에 기독교대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아직 이루지 못한 기독교대학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지속적인 기독교대학으로의 성장을 위해 대학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학원복음화를 위해 ‘말씀묵상과 기도, 복음전도에 더욱 집중’하고, 백석학원의 교육원리 중 하나인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학문연구’와 전공교수에 의한 기독교세계관 수업과 전공수업으로 이어져야 한다.

셋째, 기독교대학의 경영과 행정을 개선해야 한다.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개혁주의생명신학을 통해 외치는 것은 학문으로 신학을 하여 무신론자와 같이 예수를 부인하는 신학자들을 꾸짖는 것이요, 한국교회를 향해서는 머리로만 예수를 알고 영적생명력이 없는 신앙인의 삶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이들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 증후군을 가진 그리스도인인 것이다. 백석공동체가 실천적 무신론증후군의 진단을 받았음을 인정해야 한다. 자기 의로 가득한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만 말씀으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개혁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개혁주의생명신학을 설립정신으로 내세우는 백석학원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보아 세상적 방식을 따르는 잘못된 경영과 행정 방식을 고쳐나가야 한다.

넷째, 기독교대학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세상의 평가 중심'의 대학 운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가치로 대학이 운영되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우리대학의 기독교적 가치인 사랑이 많이 훼손되었다. 일부 부서에서 각종 평가를 앞두고 마이너스 점수라는 패널티, 실명공개 등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런 행정방식으로 교수와 직원이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외부 평가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독교대학의 가치를 훼손하면서 대학평가를 잘 받아야 한다는 것은 '세상의 수많은 대학에 또 하나의 대학'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기독교적 가치가 훼손되고 기독교적 문화가 사라진 대학은 더 이상 기독교대학이 아니다. 무너진 기독교대학의 문화를 회복하고 다시 기독교대학을 향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기독교대학인 백석대학교 교수들의 기독교대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가 가지는 함의를 논하였다. 앞으로 국내외에서 많은 기독교대학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연구들이 활성화되어 서로 힘과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Swezey, J. A. & T. C. Ross (2012). Balancing Religious Identity and Academic Reputation at a Christian University, *Christian Higher Education*, 11(2), 94-114.
- 조계광 역 (2020).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John Piper.(2020). *Coronavirus and Christ* 2020. 서울: 개혁된실천사.
- 계제광 (2017). 기독교대학에서의 갈등양상과 화해조정 방안에 대한 연구. **대학과 선교**, 34: 89-130.
- 권오병 (2005). 기독교 대학 경영의 역세속화를 위하여: 대학의 사역적 탁월성과 학문적 수월성의 관점에서. **로고스경영연구**, 3(1):71-76.
- 김기석 (2015). **선교자를 위한 성서읽기**: 실천적 무신론자들-시편 14:1-7, 대한기독교서회, 676: 78-83.
- 김성수 (2017).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문제에 대한 몇 가지 단상. **월드뷰**, 30(8):34-38.
- 김지원 (2018). 기독교학문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현황 및 제언: 백석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융합정보논문지**, 8(5): 159-171.
- 류호준 (2004). 등불 들고 계신 하나님과 실천적 무신론자들: 스바냐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두란노. **목회와 신학**, 181:198-209, 2004.
- 안중희 역. (2013). **은밀한 세계관**, Wilkens S & Sanford M.(2009). *Hidden Worldviews*.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장종현(2014). **백석학원의 설립정신**. 백석정신아카데미. 천안: 백석정신아카데미.
- 장종현 (2018). 백석연구소 총서 4: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 천안: 백석정신아카데미.
- 장종현 (2021).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 정종훈 (2014). 기독교대학의 현실적 위기와 대책 찾기. **대학과 선교**, 26: 73-108.
- 채영삼 (2021a). **복음의 회복과 세상 속의 교회**. 고양: 이레서원.
- 채영삼 (2021b).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생활 속의 신앙**. 고양: 이레서원.
- 최영근 (2018). 비전과 현실 사이에서 기독교대학 정체성 추구에 관한 연구: 미국 데이비슨 대학(Davidson College)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과 선교**, 38: 189-235.
- 한병수 (2022). **거인들의 예정**. 서울. 세움북스.